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금년 상반기중 동남권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의 부정적 영향으로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제조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가운데 수출, 고용, 소비 등도 크게 부진하였다.

하반기 경기여건은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수요부진 완화, 전기차 판매호조, 신차 효과 등이 예상되고 조선 산업은 LNG선 중심의 수주 지속, 선박인도 업무 재개 등에 따른 생산 회복세가 기대된다. 위축된 투자 및 소비 심리도 주력산업 회복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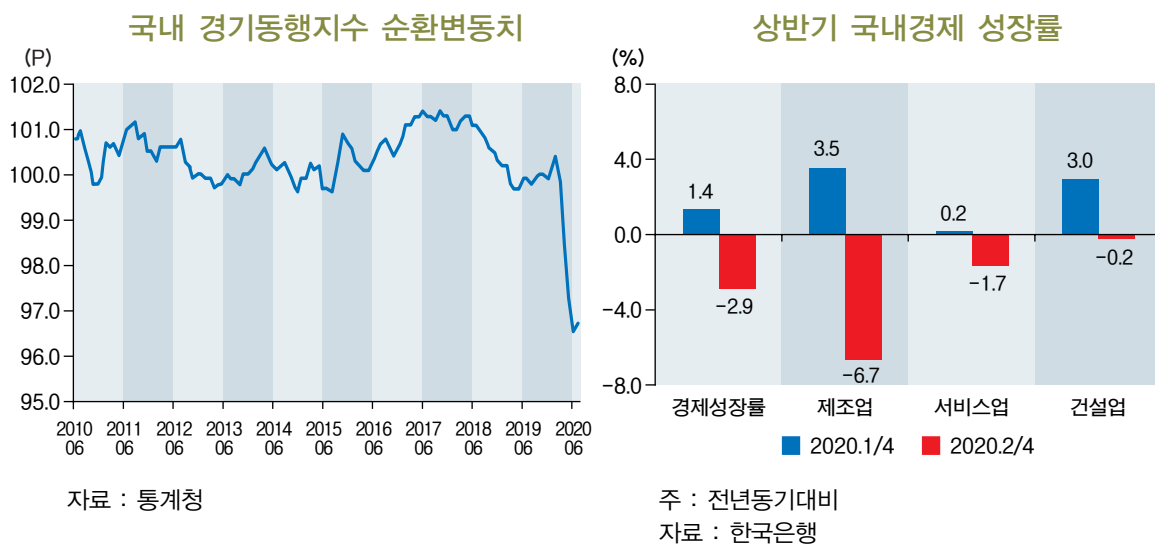
다만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어 있는 만큼 단기간내 강한 경기 반등과 큰 폭의 성장세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에도 개인,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년 상반기 국내경제,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

국내경제는 금년 상반기중 코로나19 충격의 부정적 영향으로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초부터 빠르게 하락하며 5월에는 96.5p까지 낮아졌다. 이는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9년 1월(96.5p)과 같은 수준이다.

상반기 국내 경제성장률도 전년동기대비 -0.8%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1분기 1.4%의 미약한 성장에 그치다가 2분기 들어서는 -2.9%까지 급락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분기 3.5%에서 2분기 -6.7%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기간 서비스업은 0.2%에서 -1.7%, 건설업은 3.0%에서 -0.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요 전망기관들은 2020년 한국경제가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0.2%와 -0.5%로 예상했다. 해외기관 전망은 더욱 부정적이다. IMF는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2.1%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았으며 OECD는 -1.2%로 예상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의 2차 확산(Double-hit)이 현실화되면 -2.5%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²⁾.



1)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0.8%를 기록

2) 전망치 발표시기는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2020년 5월, IMF와 OECD는 2020년 6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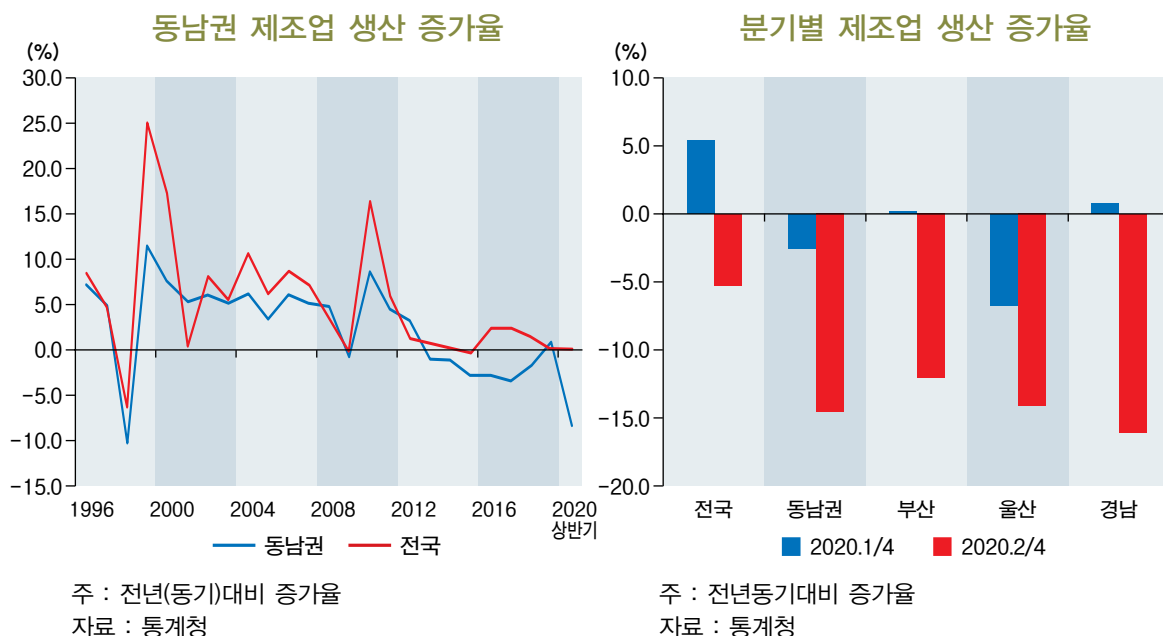
동남권 경제도 생산·수출·고용 큰 폭 감소하며 부진

① 생산 :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동남권 제조업 생산은 금년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8.8%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10.5%)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금년 1분기(-2.6%)는 소폭 감소에 그쳤으나 2분기(-14.7%) 들어 급락세로 전환된 것이 상반기 부진의 주요 요인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 전지역의 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10.5%)은 자동차 수출 급감, 조선 생산공정 차질 등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경남(-8.0%), 부산(-6.2%) 순으로 부진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의 경우 상반기중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동남권과 달리 보험세(0.0%)를 기록했다³⁾. 이는 전반적인 제조업황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대 주력품목인 반도체 생산이 PC 및 서버용 메모리 수요 확대에 32.5% 늘어나는 등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3) 전국 제조업 생산은 1분기중 5.5%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5.2% 감소

동남권 주력 제조업 생산은 금년 상반기중 금속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⁴⁾로는 자동차 산업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19.9%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내수는 신차효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늘어난 반면 수출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수요 위축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⁵⁾.

조선업의 경우 금년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생산 증가세를 시현하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2분기 들어 감소하면서 상반기 생산은 마이너스 성장(-1.9%)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19년의 양호한 수주량을 감안할 때 금년에도 증가세가 기대되었으나 해외 선주국가들의 봉쇄조치에 따른 업무차질, 생산일정 연기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화학, 기계, 석유정제, 철강 등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대내외 수요 감소 등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기계의 경우 투자심리 위축 및 조선 관련 부품 생산 부진 등으로 자동차 다음으로 감소폭(-7.8%)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 주력산업 생산 증가율

(%)

구분	2019년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상반기
자동차	5.8	5.6	0.1	-3.6	1.8	-12.0	-27.2	-19.9
조선	34.2	40.7	28.2	17.9	29.4	10.0	-12.4	-1.9
화학	1.1	0.1	-1.3	-4.8	-1.2	-2.0	-5.7	-3.8
기계	-2.9	-4.6	-7.7	2.4	-3.2	-2.9	-12.3	-7.8
석유정제	-3.1	1.9	-7.0	-8.1	-4.2	1.0	-8.0	-3.6
금속	-13.1	-7.8	-7.4	-5.0	-8.3	3.1	-2.3	0.4
철강	1.2	-1.2	-4.7	-6.5	-2.9	-0.3	-9.9	-5.2
제조업 전체	1.7	3.1	-0.3	-1.0	0.8	-2.6	-14.7	-8.8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4) 동남권 제조업 업종별 비중 현황(%), 2018년 광업제조업조사 부가가치 기준)

· 자동차(14.9), 조선(14.1), 화학(12.6), 기계장비(10.0), 석유정제(9.3), 금속(8.1), 철강(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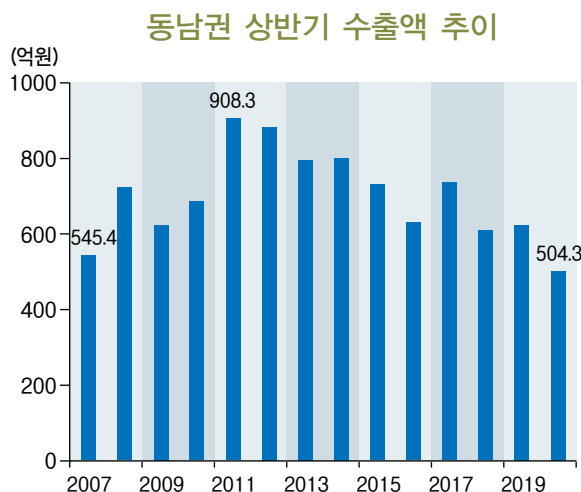
5) 금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내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한 930,464대를 기록했으나 수출은 33.4% 감소한 826,710대에 그침

② 수출 : 2007년 이후 최저 수출금액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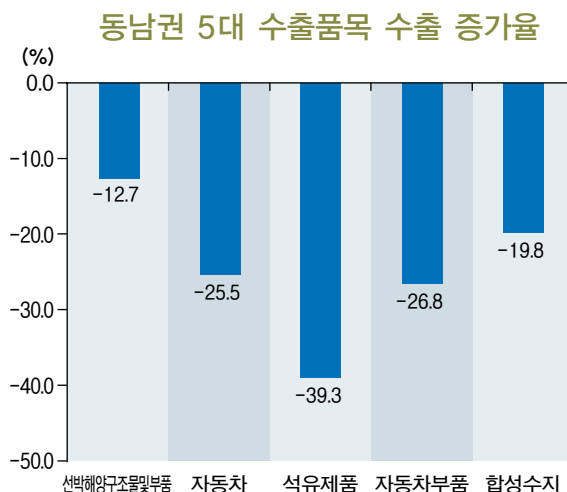
금년 상반기중 동남권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2% 감소한 504억 3천만달러를 기록했다⁶⁾. 상반기 수출액 기준으로 2007년 이후 최저치이다.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던 2011년 상반기(908억 3천만달러) 대비로는 5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⁷⁾.

지역별로는 동남권 최대 교역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20.1%, -1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일본(-13.3%), 베트남(-13.7%), 싱가포르(-33.2%) 등 3~5위 수출 대상국도 모두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수출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 5대 수출품목 실적도 모두 부진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선박해양구조물및 부품은 전년동기대비 -12.7%, 2위 품목인 자동차는 -25.5%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위 품목인 석유제품은 -39.3%로 5대 수출품목 중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4~5위 품목인 자동차부품(-26.8%)과 합성수지(-19.8%)의 경우도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주 : 각년도 상반기 수출액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20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6) 금년 상반기 전국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1.3% 감소한 2,406억 4천만달러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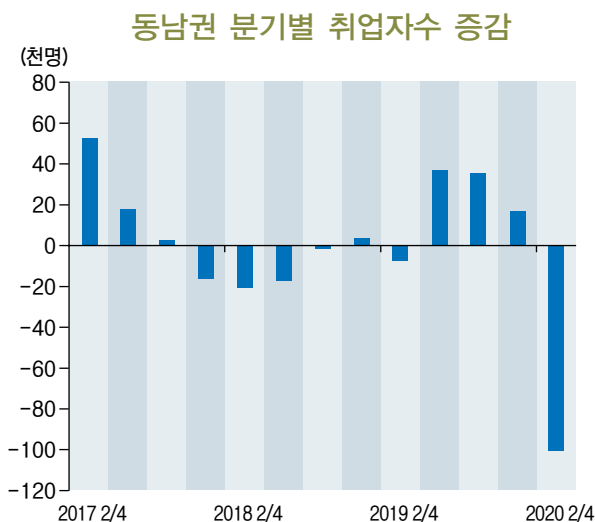
7) 동남권 분기별 수출은 1분기(-2.2%)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2분기(-34.6%)에는 크게 부진

③ 고용 : 취업자수 2분기중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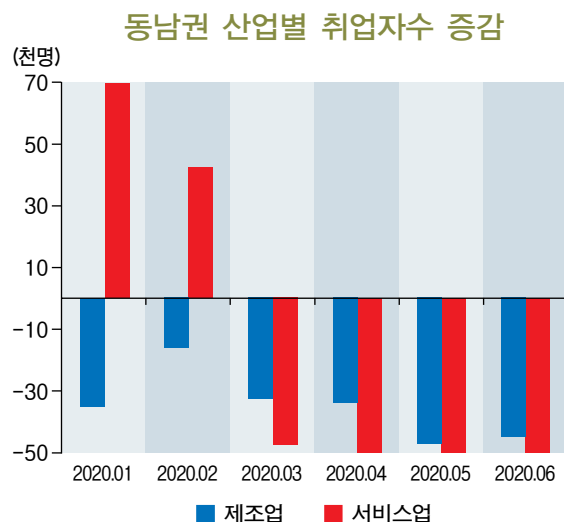
동남권 취업자수는 금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4만 2천명(월평균 기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는 1만 6천명이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분기들어 급감(-10만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2만 5천명)의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경남(-1만 1천명), 울산(-6천명) 순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만 5천명)이 서비스업(-1만 8천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이 감소하였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자동차, 기계, 철강, 화학 등 대부분 주력산업의 고용여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금년들어 매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1분기 증가세를 시현했으나 2분기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이다. 세부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1분기 3만 5천명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1만 8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경우는 같은 기간 -7천명에서 -4만명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감(월평균 기준)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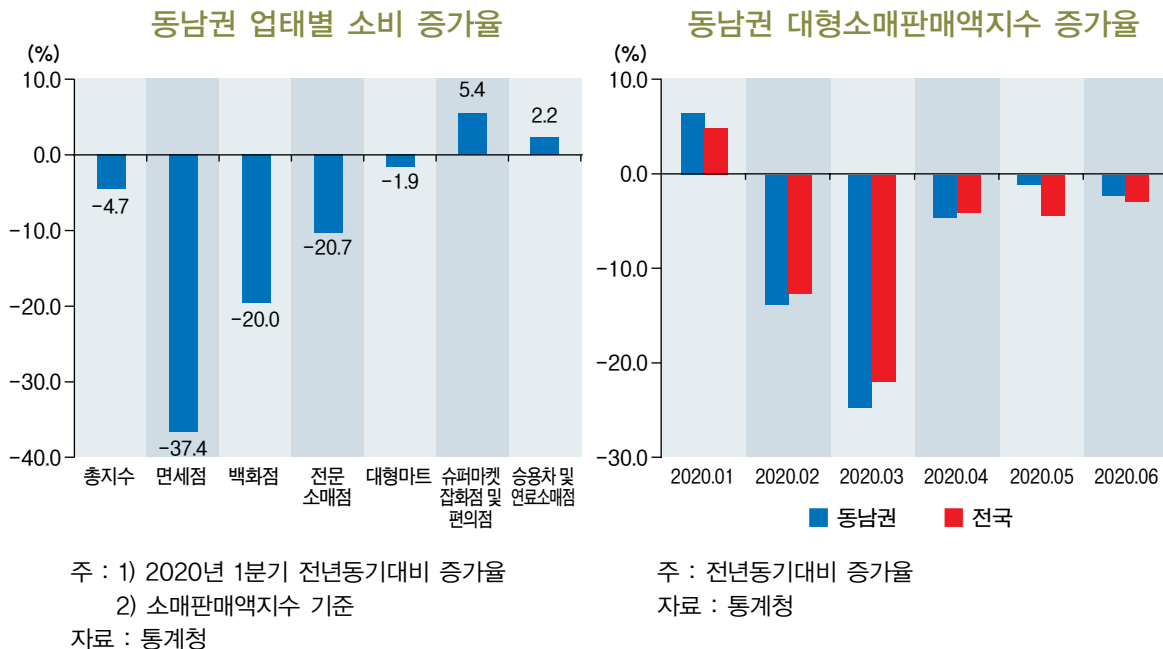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

④ 소비 : 2분기 들어 급락세 진정

금년들어 동남권 소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외활동 위축,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1분기중 동남권 소매판매는 부산(-6.5%), 울산(-5.2%), 경남(-0.5%) 등 전지역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부산과 울산은 전국 평균(-2.9%)보다 감소폭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별로는 글로벌 여행급감 및 대인접촉 기피 등의 영향으로 면세점(-37.4%), 백화점(-20.0%), 전문소매점(-10.7%), 대형마트(-1.9%)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반면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5.4%) 및 승용차·연료소매점(2.2%)은 대형소매점 방문 감소, 자가용 이용 확대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분기 들어 소비 부진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감소, 재난지원금 지급,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효과로 판단된다. 동남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가율은 1분기중 -10.4%의 급락세를 보였으나 2분기에는 -2.5%로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부진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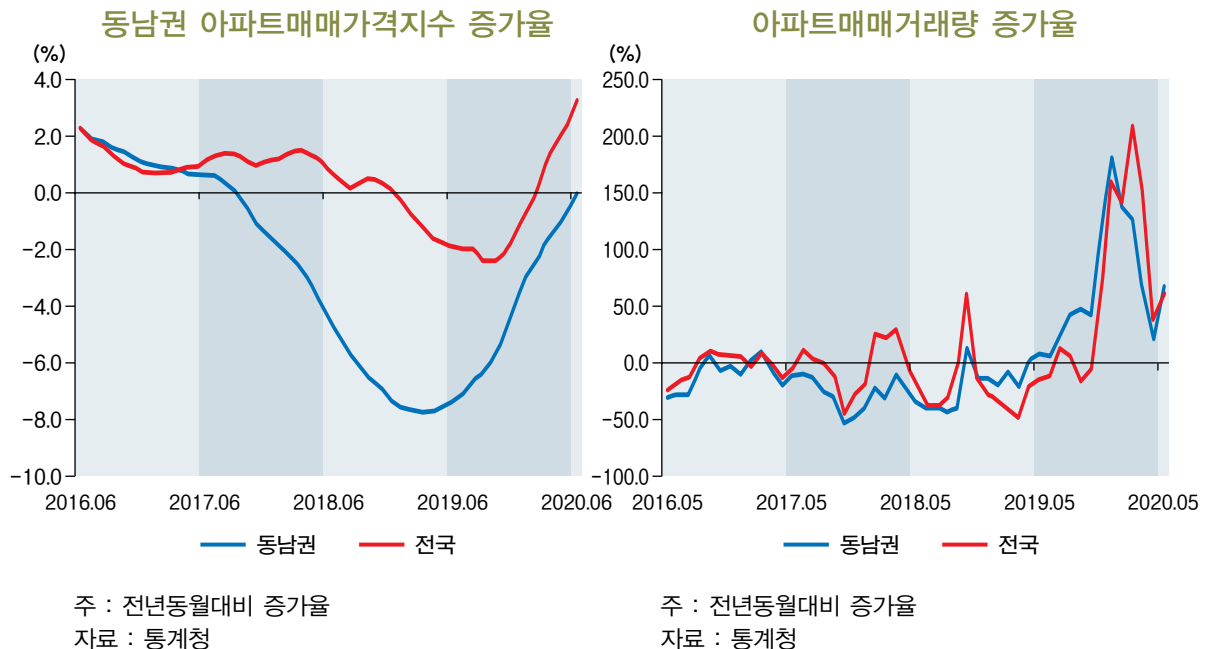
8) 동남권 상반기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대비 -6.6%의 감소율을 기록

⑤ 부동산 : 가격 하락폭 축소되고 거래량 증가

동남권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은 금년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1.5% 하락하였다⁹⁾. 하지만 2분기(-0.7%)에는 1분기(-2.4%)보다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6월(0.0%)에는 2017년 10월 이후 33개월 만에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국의 경우 상반기중 1.3%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남구(3.0%)와 북구(0.1%)를 중심으로 금년 상반기중 0.2% 상승하였다. 하지만 경남의 경우 통영(0.1%)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하락하며 -3.4%의 하락률을 기록하였다. 부산은 수영구(1.5%), 해운대구(1.3%), 남구(0.0%), 연제구(0.0%)를 제외한 지역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1.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 아파트매매거래량도 금년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79.2% 늘어나며 2019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지역별로는 부산(111.2%)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울산(71.7%), 경남(54.5%) 순으로 조사되었다.



9) 동남권 반기별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0.3(2017. 하) → -3.0(2018. 상) → -6.3(2018. 하) → -7.6(2019. 상) → -5.8(2019. 하) → -1.5(2020. 상)

10) 아파트매매거래량 증가율은 금년 1~5월 기준

하반기 동남권 경제, 완만하게 회복할 전망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의 해법 찾기에 집중할 필요

동남권 경제는 상반기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었다. 생산, 수출, 고용, 소비 등 대부분의 경기지표가 전국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금년중 지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코로나19 사태의 2차 대유행이다. 경제 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통화·재정정책 여력도 크지 않아 2차 대유행시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 악화 등도 주요한 경제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다행히도 주요 전망기관들은 하반기 국내 경기여건이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유로 등 주요국 경기 위축세 완화로 대외여건이 회복되고 한국판 뉴딜정책 및 추경 효과 등으로 내수도 개선흐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동남권 경제도 완만하게 회복할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수요부진 완화, 전기차 판매호조, 신차 효과 등이 예상되고 조선 산업은 LNG선 중심의 수주 지속, 선박인도 업무 재개 등에 따른 생산 회복세가 기대된다. 위축된 투자 및 소비 심리도 주력산업 회복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어 있는 만큼 단기간내 강한 경기 반등과 큰 폭의 성장세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에도 개인,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는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재확산을 적극 경계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모두 함께 노력하며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2020년 상반기 동남권 주요 경제지표 동향

- 동남권 생산, 수출, 고용, 부동산, 소비 등 모든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 성장.
다만 생산, 수출, 고용과 달리 부동산 및 소비는 1분기 대비 2분기 개선 흐름
- 지역별로는 제조업 비중 및 수출의존도가 높은 울산이 동남권 전지역중 부진 폭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

(%, 천명)

구분		전국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생산	1분기	5.5	-2.6	0.0	-6.7	0.8
	2분기	-5.2	-14.7	-12.1	-14.2	-16.1
	상반기	0.0	-8.8	-6.2	-10.5	-8.0
수출	1분기	-1.8	-2.2	-7.9	-4.9	4.2
	2분기	-20.3	-34.6	-30.9	-39.9	-26.5
	상반기	-11.3	-19.2	-19.8	-23.5	-11.6
고용	1분기	288	16	8	6	2
	2분기	-407	-100	-57	-18	-24
	상반기	-60	-42	-25	-6	-11
부동산	1분기	0.1	-2.4	-1.9	-1.2	-4.2
	2분기	2.5	-0.7	-0.9	1.6	-2.6
	상반기	1.3	-1.5	-1.4	0.2	-3.4
소비	1분기	-9.8	-10.4	-10.4	-12.4	-9.1
	2분기	-3.6	-2.5	-2.6	-0.9	-3.8
	상반기	-6.8	-6.6	-6.6	-6.8	-6.5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고용은 월평균 취업자수 증감

3) 생산은 제조업 생산지수, 수출은 수출금액, 부동산은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소비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7

산업연구원, “2020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 전망”, 2020.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산업 전망”, 2020.6

한국수출입은행, “해운·조선업 2020년 2분기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20.7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2020.6

_____, “경제전망보고서”, 2020.5

통계청, www.kosis.kr

한국고용정보원, www.ei.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BNK경제인사이드 발간목록

2016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07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同苦同樂

동고동락 -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다

BNK는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제 살리기를,
내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앞장서 지원하겠습니다
늘 지역과 함께 동고동락하겠습니다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 바로 **BNK**입니다



[BNK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15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온누리 상품권 22억원 구입을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
지역화폐시장 지원을 위한 장미꽃 나눔
방역마스크 10만개 배부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벤처투자 BNK 범프로농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0-07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0년 7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